

뉴스특보  
news in news

### 법륜스님의 求法여행

"세상에 저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스님이 수행은 언제 할까?"

하루 평균 두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법륜(정토회 지도법사) 스님.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는 북한돕기(좋은벗들), 제3세계 난민돕기(ITS), 불교환경교육(불교환경교육원), 깨달음의 심성수련(정토수련원), 우리 고대사 복원하기, 불교 교육(8개 정토법당) 등의 일들로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법륜스님을 보면 자연 이런 의문이 든다.

그러나 모든 일들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몰두하는 것이 법륜 스님과 정토회의 주된 수행방법이다. '순간순간 깨어있는 보살', '일과 수행의 통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고요함만 찾는 것은 반포막 수행'일 뿐이다.

법륜 스님은 윤초 정토회 대표자를 그만두고 행정일선에서 벗어나 정토회 지도법사로서 수행부문에 주력하고 있다. '준출가자'나 '다름없는 50여 정토회 간사들과 3000여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행 지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스님은 매년 봄 가을, 민사를 제쳐놓고 국내 8개 정토법당과 미국, 독일, 인도 등지의 8개 지원으로 순회 강연을 계속해 왔다.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수행과 깨달음의 길'이란 주제로 근본불교 및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집중 지도하고 있다.

지난 8월31일 '박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이후 인도 보드가야에 불교 명상센터 건립키로 하는 등 주요 불교성지에 수행센터를 세워 인도 전방에 원력을 쏟기로 한 것도 NGO 활동과 수행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스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 3대 '야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비쁘긴 뭐가 비쁘?'란 은사 도문(대사 조실) 스님의 호령을 듣고, 불교에 눈뜬 후 법륜 스님이 걸어온 치열한 구법(求法) 여행은 수행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김재경(취재2부 차장)

## 지방국 5개 더 있어야 난청 해소

### 1일 춘천불교방송 개국, 기존 방송국 출력 증강 필요

불교방송이 전국가청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의 지방국이 더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월 1일 춘천불교방송(사장 오현 스님)이 부산, 광주, 대구, 청주에 이어 다섯번째 지방국으로 개국했다. 이로써 강원 영서지역을 가청권으로 확보했지만 강원 속초 등 영동지역은 중계소 설치 없이는 불교방송을 들을 수 없다. 춘천불

교방송은 개국 후 영동지역 중계소 설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국의 경우 재원과 인허가, 운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중계소 확장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방송은 11월 초 전국 5개 지방국의 중계소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불교방송이 전국 가청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주요지역에 지방국을 설립하고 중계소 운영을 통해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서울과 부산 불교방송의 출력은 5kw지만 다른 지역은 3kw에 불과하다. 중계소 운영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렇게 볼 때 기존 지방국의 꾸준한 출력 증강과 전주, 제주, 목포·여수·진주, 포항, 안동 등지의 지방국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의견이다.

CBS 기독교방송의 경우 개국 준비 중인 울산을 포함해 13개 지역국에 5개의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 방송인 PBC 평화방송의 경우 7개 지역국이 가동되고 있다.

박시하 불교방송 기술부장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방송이 지난해 영동방송국을 개국하는 등 13개 지역국을 가지게 될 만큼 우리도 최소 10개 정도의 지역국은 있어야 전국적인 방송이 될 수 있다"며 "재원 문제 등도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방송망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방송의 지방국 허가는 그동안 대대적 후보들이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왔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불교방송의 지방국 추가 허가를 주된 불교계 공약으로 내세울지 주목된다.

김지연 기자 jlyang@buddhopia.com



부처님 사진 들고 기뻐하는 인도 불자들 한국 불교계가 인도 불교의 중흥을 위해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재가단체, 정토회, 한국불교법사회 등 인도 불교 지원단은 18~20일 석가대사 사는 지역 9곳을 순례했다. 20일 인도 우따라프라데시주 칸노즈 베레푸르 지역 법사에서 어린이들을 비롯 주민들이 법사회가 기증한 부처님 사진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남동우 기자

## 천태종립 금강대 11월 7일 준공

### 5개 전공분야 100명 모집, 내년 3월 개교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는 11월 7일 오전 10시 총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학교현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내년 3월 개교에 따른 학사일정 준비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이날 준공식을 갖는 금강대는 대지 3만5천여평 부지에 건평 3천7백여평 규모의 강의동과 기숙사

를 갖추게 된다. 강의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학교 본부와 강의실, 교수 연구실,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 2동은 독서실, 헬스장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게 된다.

금강대는 지난 6월 초대 총장으로 박봉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

빙하고, 9명의 교수진도 확보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금강대는 개교 첫 해에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 통역학부(영어나 일어학, 중국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3개 학부 5개 전공분야에 총 100명(전공별 20명씩)의 학생을 선발한다. 김철우 기자

## 전계대화상 보성스님 추천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에 광고스님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주지와 중앙총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1997년 조계종립 제5대 방장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조계종 154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진제스님(해운정사 조실)의 원로의원 선출 건은 보류됐다. 원로의원들은 조계종과 선학원 간의 완전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제스님이 선학원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원로회는 사무처장에 광고스님(총회의원)을 임명했다. 또 지난해 9월 151회 임시중앙총회에 상정됐던 원로의원 선출 방식 등의 중헌개정안은 12대 총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원로회의는 총회에 상정됐던 개정안을 재검토한 뒤 13대 중앙총회 집행부와 협조해 다시 상정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도원)는 25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19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전계대화상에 추천했다. 전계대화상은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戒壇)을 관장하는 최고 어른으로, 원로회의에서 추천하고 중정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전계대화상 추천은 현 전계대화상인 범룡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보성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 출생으로,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0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 불교정보화 협의회 창립 11월 5일

### 인프라 구축·유용한 콘텐츠 개발·보급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는 11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각 종단과 단체들의 의지가 모아진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6월부터 20여 종단과 단체 실무자들이 창립을 준비 해 온 정보화협의회는 전법과 수행, 문화, 산업, 교육 등 제반 분야의 정보화 방안을 제시하고 불교계 정보화 인프라 구축, 유용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바탕으로 하는 광범위한 공익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IT계계의 경영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단 등을 결성해 불교

계 정보화 발전의 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각종단과 단체 대표 및 불자자원, 불교계에 관심을 가진 IT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게 되

는 이날 법회는 KT와 (주)에플웨어 정보통신이 협찬하며 '불교계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한 건의문'도 발표된다. 임연태 기자

### 조계종 중앙총회 선거

128명 등록...158대 1 경쟁

조계종 제13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23일 마감됐다. 등록마감결과 전체 총회의원 81명 정원에 모두 128명(비구니 대 표 10명 포함)이 등록 158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우 20명 선출에 31명이 등록, 15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직선직의 경우는 51명 정원에 87명이 후보로 나서 1.7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7명이 입후보한 동화사로 나타났다. 직선직 총회의원 선출은 27일, 직선직 총회의원 선거는 31일 각각 실시된다. (입후보자 명단 3면)

한명우 기자

### 국제 무차선대회 지상중계 20~21면

## 21세기 불교의 희망을 여는 봉은 문화센터 준공

봉은 문화센터는 불교현대화의 초석입니다

봉은사 거룩한 도량 안에 (주)대우건설이 정성을 다해 회관을 지어 불교 현대화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5천 6백 평 큰 시설에 천만 불자들의 큰 꿈을 담아줍니다. 불교문화의 전당으로 발돋움할 봉은 문화센터에는 신도 수행공간을 비롯한 강당과 각종 문화교실 공간, 연회장, 사무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 봉은 문화센터 준공식 일정

- 일 시 : 2002년 11월 7일(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봉은 문화센터
- 문의처 : 02)511-6070~4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혜

신도회장 안승기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남상국

